

현대백화점그룹, 일본LED시장 진출

현대백화점그룹이 일본의 발광다이오드(LED)조명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.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LED는 금년 4월부터 일본 대리점을 통해, 사무실용과 상업용 대형조명 등 10개 제품을 판매할 계획

□ 현대LED 일본시장 진출

- 현대백화점그룹이 일본의 발광다이오드(LED)조명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
 - 현대백화점그룹계열인 현대LED는 금년 4월부터 일본 대리점을 통해, 사무실용과 상업용 대형조명 등 10개 제품을 판매할 계획
 - * 원화 약세와 저 코스트 생산으로 제품 가격을 일본의 경쟁 제품에 비해 최대 50% 정도 낮게 책정
 - 현대백화점그룹의 일본진출 배경에는 △일본의 LED시장 확대 전망, △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 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
 - * 현대LED는 일본 시장에서 2012년 10억엔(약 137억원), 2015년에는 50억엔(약 690억원)의 매출을 목표
 - * 2011년 일본 LED시장 규모는 2010년 보다 185.7% 증가한 1,393억엔을 기록

〈현대LED 개요〉

설립	· 2010년 12월
업종	· LED조명기기
지분	· 현대그린푸드 51%, 서울반도체 10%
사업계획	· 현대그룹 계열사를 비롯, 관공서 및 일반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간 거래(B2B)시장에 주력할 계획

□ 일본의 조명시장

- 야노경제연구소에 의하면, 2011년 일본의 일반조명시장 규모는 2010년 대비 106.7% 확대된 8,013억엔
 - 일본은 에너지절약법이 개정되어 사무실, 공장, 상업시설 등에서 LED조명을 비롯한 고효율 조명기기의 니즈가 확대 추세
 - * 311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절전·에너지절약 니즈가 증가하여 일반가정에서도 LED조명기기 구입이 늘고 있어 시장규모는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
 - 2011년 LED조명시장규모는 2010년에 비해 185.7% 증가한 1,393억엔을 기록
 - * 09년 이후, LED조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규모는 매년 확장 추세('10년: ' 09대비 200.5% 증, '11년: ' 10대비 185.7% 증)
 - 조명기기를 제조하던 기업들도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응하여 LED사업으로 시프트하고 있음
 - * 신규개발, 생산 및 영업체제를 재편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LED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중견기업의 시프트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
 - 일본의 LED시장 확대로 외국기업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으며,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인 롯데정보통신, POSCO LED 등이 일본시장에 진출
 - * '12년 2월 롯데는 일본다이요화학과 제휴하여 LED제조위탁 계약을 체결
 - * POSCO LED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제휴, POSCO JAPAN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

□ 시사점

- 일본의 LED시장은 동일본대지진 이후,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

- 한 인식전환과 정부지원 확대로 중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
- 조명기기는 10년 만에 2011년도 대일 무역수지가 흑자(35백만불)로 전환된 품목으로 시장진출 기회가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 - 이러한 일본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나, 많은 업체가 동시에 진출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
- 장기적으로는 일본시장도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축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FirstMover로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흥국시장 진출이나 수요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요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<참고자료>

矢野經濟研究所, 照明市場に関する調査結果 2011(2011.12.12)

日本經濟新聞, “韓国・現代百貨店 LED照明 日本進出”(2012.03.05)